

담양군수 재선거 10여명 출사표... 지역정가 '들썩'

이병노 군수 대법 당선무효 확정 전 군수·국회의원·군의원 등 거론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경쟁 예고尹탄핵 여부 따라 선거일 유동적

이병노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서 그동안 물밑 행보를 이어오던 입지자들이 재선거 준비를 서두르는 등 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벌써부터 10여명 안팎의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여부와 시기에 따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열려 있어 당초 4월 2일로 예정된 선거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담양군은 정광선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항소심까지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일찌감치 재선거를 예상하고 지난 설 연휴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입지자들은 이날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양에서는 10여명에 달하는 입지자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화삼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최형식 전 담양군수, 윤영덕 전 국회의원, 이재중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자천타천 출마자로 거론되면서 당내 공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최형식 전 군수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전 군수는 민선 3기와 5, 6, 7기 등 이른바 '징검다리' 4선 후 지난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3선 연임 군수직 수행 후 공백이 있어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 전 군수는 "출마를 요청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많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담양이 고향인 윤영덕 전 국회의원은 "고향에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로 꼽히는 이재중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담양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군수직 도전을 공식화했으며, 지난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에 나선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정오 전 담양군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3선 국회의원인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10월 영광·곡성 재선거에서 불었던 '조국혁신당 바람'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김기석 전 담양군의회와 공무원 출신 인사 등도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다.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담양과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열린다.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 가능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3월 12일 이전에 현재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보궐선거 일정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결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출신 군수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 또한 단순히 군수 교체를 넘어 지역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며 "민주당 내부 공천 경쟁과 조국혁신당 후보 출마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본격화될 선거전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극우세력, 광주서 내란 지지집회 중단” 촉구

광주 대표자 연석회의, 결의문 발표姜 “내란 선동·헌법 훼손에 반대”

15일 광주에서 예고된 극우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앞두고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광주지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반헌법 극우세력의 내란 선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시의회,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오월단체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13일 전일빌딩245에서 '12·3 계엄 및 내란지지 집회 대응을 위한 광주지역사회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12·3 계엄 및 내란지지 집회 대응 결의문'을 채택하고 "계엄과 국회 탄핵의 강은 건넜지만 거대한 극우세력이 대

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1980년 광주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맨 앞에서 독재의 총칼에 맞섰다면, 오늘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맨 뒤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기정 시장은 연석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5·18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가짜 민주주의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계엄의 밤, 시정에 모여 비상계엄 무효를 선언했던 우리가 오늘 5·18민주광장에 다시 모였다"며 "5·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등 광주지역 기관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종교계 등이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2·3 계엄 및 내란 지지 집회 대응 기자회견에서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전두환 쿠데타 주시민이 피를 흘린 곳이다. 이곳에 내란 세력의 만행에 맞서 싸우면서 수많은 민을 선동하는 반헌법 극우세력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 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